



**출애굽기 22장 25-31 해가 지기 전에 (금요기도회)**

재산 보호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 했을 경우, 또 내가 기르던 짐승이 포도원을 망쳤을 경우 배상의 원리입니다. 또 부득이하게 내 소유의 물건이나 가축들이 남에게 맡겼을 때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관계입니다. 이웃과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적절한 질서대로 하면 분쟁과 관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냉정하고 공평이 전혀 배제된 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전달되는 약자들에게 대한 규례들입니다.

**1. 채권자가 되지 말라(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약점입니다. 약점은 사람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약점이 되면 부양하는 가족 모두가 그러한 약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권자라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힘 있는 모습입니다. 그 힘을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들이 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점인 사람 있습니다. 학벌이 약점인 사람 있습니다.

**2. 꼭 갚으라(25)**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 돈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빌리면 꼭 갚으려고 해야 한다. 도와주면 고마워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원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는 내 돈 같습니다. 그래서 빌릴 때 고마운 마음 보다는 약속한 심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원한이 쌓입니다. 여기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 사람도 상처가 되고 갚으려는 사람도 의혹이 식습니다. 그래서 도와 줄 지언정 꾸지 않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안 빌리고 안 꺾주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생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주님은 이적을 배후실 때 꼭 이러한 감동을 나누십니다. 떡을 떼어서 5천명을 먹이실 때에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나누는 내내 제자들은 감동과 은혜입니다. 가나혼인 잔치에서도 종들에게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가득채운 종들은 물을 뜨는 순간 포도주가 됩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은 평생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옷을 돌려 받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처럼 오늘 밤에도 이슬을 피해서 잠을 자게 되었구나. 합니다. 그 옷을 전달해 준 사람도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좋은 삶을 배우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 그가 부르짖는 다" 고 합니다. 서러워서 부르짖을 사람이 이제 감격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